

4차시

사이버 따돌림과 혐오표현 없애기

사이버 따돌림과 혐오표현의 유형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Q1

친구들이 나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고 나서 나만 남기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나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해당 초대를 받고 싶지 않지만 단체 채팅방 앱의 특성상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① 1388 상담센터를 이용한다.
- ②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 ③ 상담을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
- ④ 앞의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하다.

A1

④

설명 : 사이버 따돌림 피해를 받았다면, 가족이나 선생님, 1388 상담센터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들을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사이버 폭력이 계속된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Q2

다른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그냥 장난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친구가 결석을 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친구를 괴롭히려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러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A2

O

설명 : 사이버 따돌림을 줄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인의 노력입니다. 멈추라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 일 아니라는 생각, 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사이버 따돌림을 오래 지속되도록 만듭니다.

Q3

즐거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패널을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브에 접속하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중 패널로 초청된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해당 댓글을 보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A3

신고하기

설명 :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신고하기 기능이 존재합니다. 플랫폼별로 신고하기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플랫폼이 이러한 댓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꾸준히 문제가 되는 혐오차별 표현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